

피해자-생존자의 목소리 드러내기: 일본 전시 성노예제의 피해자-생존자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연대의 구축

기무라 마키(Maki Kimura)

런던대 정치학과 교수

1991년 김학순이 자신의 성노예 경험을 공개적으로 증언하면서 이에 고무된 많은 여성들이 그 뒤를 이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21세기 초반 미투(#MeToo) 운동으로 이어진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보기도 한다¹. 그러나 일본의 상당수 우익 정치인, 학자 및 기타 문화 비평가들은 일본 정부가 이 끔찍한 성노예 제도를 고안하고 운영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부인해 왔다. 기노시타가 논문에서 지적하였듯, 피해자-생존자의 상처에 대한 인정을 얻어내려는 투쟁과 일본 정부의 완전한 사과와 배상을 이끌어내려는 운동을 쉬지 않고 지속해 왔던 생존자들과 운동가들에 대한 이 같은 반발은 2015년 한일 합의를 기점으로 더욱 거세졌다(Kinoshita, 2022). 2011년 수요 시위 1,000회를 맞아 서울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최초로 건립된 '평화의 소녀상'은 물론, 기림비의 성공적인 건립 사례들과 한국 내 다른 지역과 해외에 기림비를 확산하려는 노력은 일본 우익 단체의 공격을 선동하고 강화하는 데 이용되었다.

기노시타는 30여 년간 지속되어 온 일본군 성노예제를 둘러싼 모든 정치적 긴장들로 인해 피해자-생존자의 목소리가 소외되어 왔다고 주장한다(Kinoshita, 2022). 그는 특히 무시당해 온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다면적인 고통의 경험에 관심을 쏟고 이해하는 것이 일본군 성노예제와 관련된 이 같은 정치적인 정체 상황을 넘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임을 강조한다. 시로타 스즈코(가명)는 제2차 세계 대

¹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을 기념하고자 2018년 일본에서 마련된 한 행사는 <도쿄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미투(#MeToo) 운동의 시작을 알린 김학순>이라는 제목으로 개최되었다(WAM: 2018).

전 중 성노예 경험을 증언한 몇 안 되는 일본 여성 중 한 명이다. 그는 일본에서 가족 부양을 위해 '매춘부'로 팔린 후 일제 식민지와 점령 지역에서 종군 '위안부'로 '일했으며,' 전쟁 후 성 산업 안팎을 전전하며 살아남았고, 이후 도쿄 근교 지바현에 소재한 취약 여성을 위한 거주 재활 및 요양 센터인 가니타여성의마을(Kanita Women's Village)에 입소하여 사망 전까지 수년간 여생을 보냈다. 시로타의 일생은 전기와 인터뷰를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Kimura, 2016, p.10).

시로타를 비롯하여 '매춘부'로 여겨졌던 많은 일본 여성들의 고통이 일본 수정주의 비평가들의 흔한 수사적 표현처럼 '일본 국민이 조국과 전쟁을 지원하고자 치러야 했던 숭고한 희생'이란 미명 아래 희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은 시로타의 목소리뿐 아니라 일본의 군대, 식민 정부 및 점령하에서 성폭력과 기타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경험했음을 폭로한 다른 아시아 여성들의 목소리를 묻히게 만들었다. 또한 매춘부로 팔렸다는 사실 때문에 시로타를 비롯해 일본 및 일제 식민지와 점령 지역에서 그와 비슷한 운명을 마주했던 수많은 여성들의 고통이 부정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배상 운동 초기에는 '위안부' 이력이 있는 여성들이 그 경험이 '강제적'이었는지 '자발적'이었던지에 따라 두 범주로 구분되었다. 시로타와 같은 여성들은 후자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기에, 그 상처로 얼룩진 삶의 경험은 간과되거나 아예 문제시되지조차 않았다. 그러나 이후 '비자발적/강제적'이라는 개념은 더 넓은 범위의 경험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었고, 여성이 처음에 '위안부'가 된 방식이 아니라, '위안부'로 취급받을 동안 노예와 같은 대우에 처하게 된 경위가 더 중시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시로타는 노예였으며, 자신이 성노예였음을 주장하며 '위안부'라고 불리기를 거부한 한국, 필리핀, 중국, 네덜란드 등의 여성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시로타가 진술을 통해 밝혔던 전쟁 후의 고통은 성노예제가 남긴 트라우마를 입증한다. 전쟁 후 시로타는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힘든 삶을 살았을 뿐 아니라,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아 전쟁의 끝을 보지 못한 동료 여성들의 울부짖음을 상기하며 정신적으로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했다². 시로타는 살아남지 못하고 그 고통과 삶을 인정받지 못한 채 잊혀진 여성들을 위해 기림비를 건립하기 원했고, 그 소망은 1986년에 실현되었다.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을 기리는 최초의 기림비로서, 이 기림비는 현재 가니타여성의마을이 위치한 언덕 위에 서 있다.

² 이들 여성들에게 전쟁은 진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남은 인생을 그 경험을 갖고 살아가야 했기 때문이다.

시로타의 고통스러운 경험에 참여하려면, 그와 다른 여성의 삶이 놓일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구조에 대한 예리한 인식과 아울러 연민(compassion)이 요구된다. 여기에는 민족주의, 제국주의, 식민주의, 군국주의, 가부장제의 복잡한 역사와 체계에 대한 이해는 물론, 능력, 계급, 젠더, 섹슈얼리티, 인종/민족에 기반한 착취의 구조를 만들어낸 서구 중심적 근대성의 해석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고 심화시키는 것이 포함된다. 그러나 특히 일본에서는 이러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배상 운동 과정에서 오랫동안 시로타와 같은 여성의 목소리가 완전히 반영되지 못했고, 그의 삶의 경험을 통해 이러한 억압의 체계적인 구조를 효과적으로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 어려웠다. 이러한 착취와 폭력의 구조에 대한 논의의 역사적 부재는 기노시타가 지적했듯이 (일본에서) 성차별, 인종 차별, 외국인 혐오가 만연한 사회를 지탱하는 데 일조했다(Kinoshita, 2022, p.11). 이러한 바탕이 생존자들과 다른 운동가들의 열망과 희망에 대한 한층 더 거센 반발로 작용했다. 시로타는 보호와 보살핌을 제공받을 수 있고 자신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인 가니타여성의마을에서 위안을 얻었으며, 많은 이들이 시로타의 삶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시로타는 김학순의 증언이 이뤄진 지 겨우 몇 년 만에 사망했기에, 그의 존재는 최근까지도 중심에서 밀려나 있었고, 그의 목소리도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복지 정책의 맥락과 담론 안에서만 들릴 수 있었다. 시로타는 안식처와 보호를 제공받을 수 있었지만, 그것은 사회 복지 서비스의 시선에서 그가 구제를 필요로 하는 '전략한' 취약 여성이었기 때문이었다. 기노시타가 지적했듯, 시로타가 가졌던 기독교적 신앙 안에서 그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부정한 여자로 인식되었다(Kinoshita, 2022, p. 9).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의 불행과 고난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것만으로 그 삶의 경험과 목소리를 진정으로 마주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보다는 착취와 억압의 복잡한 체계로 인해 시로타가 '고통받아야' 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촉구하고, 이러한 체계에 대항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기노시타가 주목했듯, 이런 체계가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성폭력 생존자들이 모욕을 당하거나 더 큰 피해를 입기 쉬운 사회를 여전히 지탱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비판적인 시선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또한 많은 여성들이 안정적인 고용 기회에서 배제되며 재생산 시설과 권리에 대한 접근을 제한적으로만 허용받고, 소수 민족 공립학교는 공적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며, 외국인, 특히 망명을 원하는 이들의 권리는 극도로 축소되어 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이러한 피해의 유산이 좁은 국가적, 이념적 맥락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이 여성들의 목소리를 찾아내고 귀 기울이는 과정은 다른 다양한 형태의 억압이 낳은 피해자-생존자들의 외침을 이해할 수 있는 가능

성을 여는 길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피해자들이 어떻게 뿌리부터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하며, 이러한 억압의 체계에 대항할 수 있도록 정치적 연대를 형성하는 동시에 서로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키워야 한다. 2021년 11월, 한국의 생존자 및 운동가 이용수는 영국 공영 방송국 채널 4가 제작하고 방송한 다큐멘터리 '보도되지 않은 세계: 일본의 전시 성노예를 위한 정의(Unreported World: Justice for Japan's Wartime Sex Slaves)'의 방영을 기념하며 진행된 녹취 인터뷰에서 이 부정의의 지속적인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것이 현재와 미래의 재구축에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냈다.

또 다시 분쟁이 일어난다면, 물론 더는 전쟁이 없어야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야 한다면, 다시는 '위안부' 같은 것이 생겨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제사회에 중대한 교훈입니다. 세계인들이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Lee, 2021).

다큐멘터리 상영 및 인터뷰 녹취와 동시에 진행되었던 패널 토론에서, 본 저자를 포함한 토론자들은 모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조사하고 대응하는 일은 착취, 부정의 및 폭력의 더 광범위한 구조를 다루는 과정이며 여기에는 서로 연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억압의 경험을 연결하는 작업 역시 포함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IDA & CARE, 2021).

일본군 성노예제의 희생자가 된 여성들이 겪은 특정한 피해를—그 고통을 일반화 가능한 경험으로 축소시키는 것을 피하면서—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제기된 또 다른 과제는 이용수가 요구하였듯, 그들의 경험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며, 이와 같은 부정의(및 형태는 다르나 관련성이 있는 부정의)의 재발을 방지하려면 사회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하였듯, 일본군 성노예제를 둘러싼 논의에 참여하는 이들이 보여준 생존자들의 목소리가 지닌 잠재력에 대한 제한적인 인식은 최근 기림비의 정치를 통해 드러났듯 배상 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010년 미국 뉴욕 인근 뉴저지 주 팰리세이즈파크에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생존자들을 위한 최초의 공유지 내 기림비가 건립됐다.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의 수요시위가 1000회를 맞이했음을 기념하고자 서울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진 이래로, 한국뿐 아니라 호주, 미국, 캐나다, 중국, 필리핀, 독일 등 해외에서도 기림비 건립을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활성화되었다. 평화의 소녀상은 소녀 시절의 상실을 상징하는 한복을 입은 소녀의 형상을 하고 있고, 그 옆의 빈 의자는 살아남지 못한 여성들

의 영혼은 물론 일본 대사관을 마주 보며 휴대용 의자에 나란히 앉아 시위에 참여해 온 생존자들의 영혼을 상징한다(Okamoto and Kim eds., 2016; Yang, 2016; Mackie and Crozier-De Rosa, 2019). 평화의 소녀상의 의자와 또 다른 생존자이자 운동가인 김복동의 친필을 바탕으로 한 비문은 이 기림비가 일본군 성노예제의 피해자들을 기릴 뿐 아니라 “수요시위의 정신과 깊은 역사”를 기리고자 했음을 보여준다(Okamoto and Kim eds., 2016, p. 26). 이 동상은 의도적으로 ‘평화의 소녀상’으로 이름 지어졌다. 즉, 일본군 성노예제의 피해자-생존자에게만 헌정된 기념물로서 설정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맥락에 대한 이해의 부족은 기림비의 건립에 대한 솔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결과적으로 기림의 정치를 낳았다.

전 세계에 피해자-생존자를 위한 기림비를 건립하기 위한 캠페인이 상대적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요인은 부분적으로는 초국가적인 페미니스트 네트워크의 발전과 디아스포라 정치의 연합 구축 및 초국가적 기림을 위한 그들의 노력에서 찾을 수 있다(Hasunuma and McCarthy, 2019; Kwon, 2019; McCarthy and Hasunuma, 2018; Yoon, 2018). 그러나 캠페인 목표의 달성과 특히 아시아 외의 국가에서 (공공장소 내) 기림비의 지속적인 존치 여부는 트라우마와 전쟁에 대한 독특한(지역적) 내러티브와 보편적 내러티브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능력에 크게 의존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동부 글렌데일 센트럴 공원(2013년)과 샌프란시스코 세인트 메리 광장 인근(2017년), 독일 베를린 미테 지구 내(2020년)에서의 성공적인 기림비 건립 사례와 호주 시드니 애쉬필드 소재 유니파잉 교회(Unifying Church)에서의 부분적 성공 사례 등은 일본 정부와 특정 일본 재외국민 커뮤니티가 제기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림비가 더 넓은 지역 사회에서 어떤 과정으로 오랫동안 소외되고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한 정의 실현의 초국가적 투쟁과 지역적 투쟁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는지 보여준다.

시로타를 비롯해 일본군 성노예제 관련 논의에서 밀려나 있던 여성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이러한 소외의 원인을 반추함으로써 (기노시타가 제안했듯) 우리는 과거와 현재의 부당한 사회 구조에 비판적인 시선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또한 과거의 고통과 불의에 대한 인정이 제대로 이뤄지고 기억되는 보다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Hasunuma, L. and McCarthy, M.M, 2019. 'Creating a Collective Memory of the Comfort Women in the US'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tics, Culture, and Society*, vol.32, no.2, pp.145-62.

The Institute for Digital Archaeology (IDA) and Comfort Women Action for Redress and Education (CARE), 2021. The panel discussion 'Channel 4 Documentary, Unreported World: Japan's Wartime Sex Slaves', 6th December, 2022.

Kimura, M. 2016. *Unfolding the 'Comfort Women' Debates: Modernity, Violence and Women's Voices*.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Kinoshita, K. 2022. 'サバイバーと出会い直す道すじを探る' i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omen's Rights and Peace 2022: War, Colonialism, and Violence Against Women, 26-27 October, 2022, Research Institute o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RIMSS), Seoul, South Korea.

Kwon, V. S.. 2019. 'The Sonyösang Phenomenon: Nationalism and Feminism Surrounding the "Comfort Women" Statue', *Korean Studies*, no.43, pp. 6-39.

Lee, Y.S. 2021. *Interview with Lee Yong-soo: Unreported World documentary "Justice for Japan's wartime sex slaves"* [video file], 6th December, 2022. Viewed 12 October, 2022 < <https://www.youtube.com/watch?v=IOVhJ6PS1BU>>.

Mackie, V. and Crozier-De Rosa, S. 2019. 'Remembering the Grandmothers: The International Movement to Commemorate the Survivors of Militarized Sexual Abuse in the Asia-Pacific War.' *Asia-Pacific Journal* vol.17, no. 4.

McCarthy, M. M. & Hasunuma, L. C. 2018. 'Coalition building and mobilization: case studies of the comfort women memorials in the United States'. *Politics, Groups and Identities* vol.6, no.3, pp. 411-434.

Okamoto, Y. and Kim, P. (eds.) 2016. *なぜ平和の少女像は座り続けているのか:加害の記憶に向き合う [Why does 'the Statue for a Girl of Peace' Remain Seated? Engaging the Memory of Harming]*, Yokohama: Seiri Shobo.

Women Active Museum (WAM), 2018. *日本軍「慰安婦」メモリアル・デー in TOKYO [8/12]*, WAM, viewed 12 October, 2022, <https://wam-peace.org/ianfu-topics/7206>.

Yang, C. 2016. '平和の碑'が立つ場所 '平和路' [Peace Street, where 'The Statue for Peace' stands]. In Okamoto, Y. and Kim, P. (Eds.). (2016). *なぜ平和の少女像は座り続けているのか:加害の記憶に向き合う [Why does 'the Statue for a Girl of Peace' Remain Seated? Engaging the Memory of Harming]*, p.114. Yokohama: Seiri Shobo.

Yoon, R. 201. 'Erecting the "Comfort Women" Memorials: From Seoul to San Francisco, *de arte*, vol. 53, no.2-3, pp. 70-85